

지역문화예술교육을 향한 라운드 테이블 워크숍

서울·경기·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일시_2014년 6월 18일(수) 13:30 ~ 18:00
장소_경기문화재단 3층 강의실 (수원)

공동주최_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문화연대

문의_naraa@ggcf.or.kr/031-231-7272

발표내용

시간	순서	발표자
13:30 ~ 14:00	등록 및 접수	
14:00 ~ 14:50	주제 1 서울! 어디까지 가봤니? · 사람과 공간을 연결하는 서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이은미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15:00 ~ 15:50	주제 2 밑 빠진 독에 물 부으리! · 경기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장혜윤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16:00 ~ 16:50	주제 3 마을에 사는 사람들 · 인천 지역기반 문화예술교육 기획사업을 중심으로	장문정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17:00 ~ 17:30	자유토의	
17:30 ~ 18:00	정리	

자가용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인계동 1116-1)

버스 ————— 수원역 → 경기문화재단(매단주공 4.5단지 하차)
2-1번, 9번, 9-1번, 82-2번, 92번, 92-1번 승차

지하철 ————— 수원시청역(분당선) 9번, 10번 출구 (도보 10분)

지역문화예술교육을 향한 라운드 테이블 워크숍 : 주제 1

서울, 어디까지 가봤니?

- 사람과 공간을 연결하는 서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사례

- 이은미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서울, 어디까지 가봤니?

- 사람과 공간을 연결하는 서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사례

이은미(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1.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시작

2012년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와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창의·인성교육 중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아동·청소년과 가족을 중심으로 한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 및 인성교육, 공동체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주말 문화프로그램 필요. 이에 따라, 학교 밖 문화예술 기관·단체에서 아동·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토요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예술 소양을 함양하고, 또래 간·가족 간 소통할 수 있는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하여 토요문화학교 추진됨.

2. 서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 연도별 추진현황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이 시작된 이래 사업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모 선정 프로그램 수도 증가추세임. 2014년 추진체계가 교육진흥원에서 지자체로 변동됨에 따라, 전액 국비에서 국비와 시비 1:1 매칭사업으로 전환됨.

[연도별 주요 추진사항(서울)]

구분	2012	2013	2014
사업예산	400,000천원	842,000천원	994,000천원
예산교부	전액국비		1(국비) : 1(시비)
추진체계	문화부-교육진흥원-광역센터		문화부-지자체-광역센터
공모선정	12개	30개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 8개 별도)	34개
자체기획	1개	1개 (서울시창작공간 8개소 연계)	1개 (서울연극센터+대학로 연계)

3. 서울만의 공간에서 꿈다락을 그린다!

1> 자체기획 프로그램

사례 ① 서울, 어디까지 가봤니?(2013)

사례 ② 청소년 연극투어(2014)

2> 공모지원 프로그램 우수사례

3> 학교예술강사 인적자원을 활용한 토요문화학교 사업연계 사례 : 소소익선

1> 자체기획 프로그램 : 사례 ① 서울, 어디까지 가봤니? (2013)

□ 특화된 지역문화예술 공간과의 연계 : 서울시 창작공간 연계

- 서울시 창작공간과 연계하여 창작공간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예술가와 함께 다양한 예술 활동을 직접 체험하는 ‘작은 예술가 되기’ 프로젝트
- 서울시 창작공간 10곳 중 중학생에게 적합한 8곳을 선정하여 창작공간별 특성화된 장르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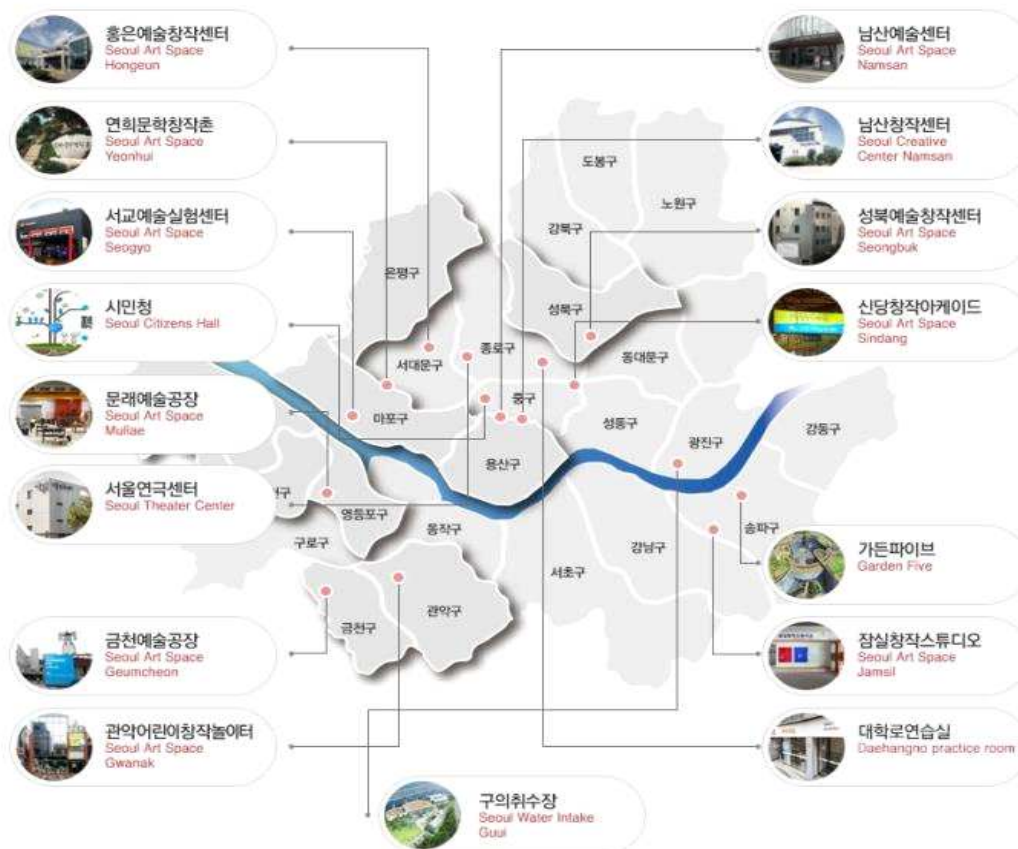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13. 03. ~ 12.
- 교육대상 : 중학생 40명
- 교육운영 : 총 3기 운영(1기/15주, 2기/8주, 3기/8주)
- 교육공간 : 서울시 창작공간 8곳

□ 서울시 창작공간

- 서울시의 도심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조성된 새로운 개념의 문화예술공간으로 서울문화재단에서 10곳 운영 중
- 서울시내의 낡고 버려진 공간을 재활용하여 예술가에게는 창작공간이 되고, 시민에게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문화향유의 공간으로 활용 중

[서울문화재단 운영_서울시 창작공간 현황 16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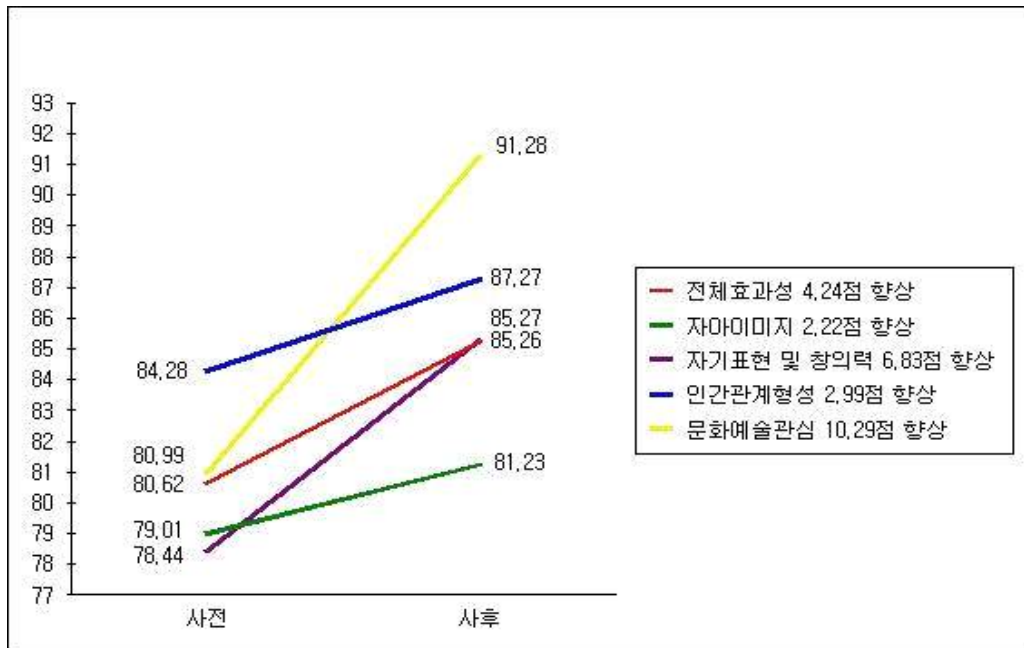


[2013년 토요일문화학교 프로그램 연계 창작공간 7개소]

구분	기존 시설형태	운영특징	개관(년-월)
금천예술공장	대규모 인쇄공장	시각예술 국제 레지던시 스튜디오	2009-10
연희문학창작촌	시사편찬위원회	도심 속 전원형 문학 창작촌	2009-11
문래예술공장	철공소	문래창작촌 등 예술가지원(다원)	2010-1
홍은예술창작센터	서부도로 교통사업소	무용, 시각예술 중심 지원	2011-5
잠실창작스튜디오	중소기업제품 전시장	시각예술 장애예술가 창작 지원	2007-7
서교예술실험센터	서교동사무소	젊은 예술가 지원, 홍대 문화생계태 조성	2009-6
성북예술창작센터	성북구보건소	예술치유 프로젝트 중심 지원	2010-7

⇒ 창작공간별 상주/활동 예술가들이 토요일문화학교 교육프로그램 기획과 진행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공간의 특성을 적극 활용하고, 전문예술가와의 협업을 통해 교육의 효과와 참여학생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함

□ 사업효과성 분석(3기) : 4개 영역, 총 30문항



□ 아우름프로그램 교육운영 동영상 : <http://www.youtube.com/watch?v=9BE7Bk60PPg>

1> 자체기획 프로그램 : 사례 ② “청소년 연극투어” (2014 진행 중)

□ 기획의도

- 현장성과 체험중심의 토요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 지역과 공간(대학로)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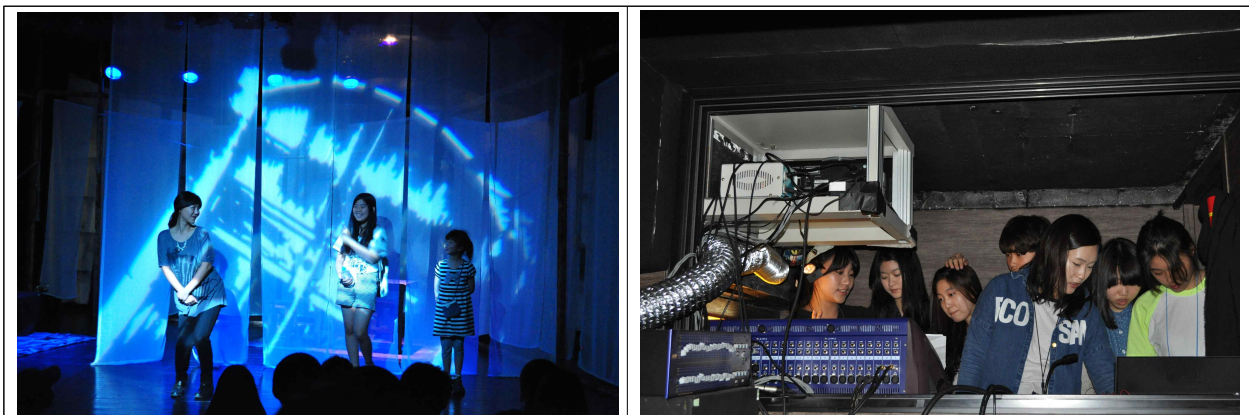
□ 운영개요

- 기간 : 2014. 04. ~ 11. (총 8기)
- 장소 : 남산예술센터 예술교육관 / 대학로 일대
- 대상 : 서울시 거주 중·고등학생 및 가족(일부)
- 프로그램 : 3주(4차시 구성)
 - ⇒ 1주 : 다양한 연극놀이를 통한 몸 열기, 마음 열기
 - 2주 : “가족과 함께하는” 대학로 프로그램
 - 전현아 배우가 다정다감하게 들려주는 대학로 이야기
 - 대학로 명소(학림다방, 마로니에공원, 예술가의집 등) 둘러보기
 - 소극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체험들(음향·조명 콘솔, 발광테이프, 카메라이트 등)
 -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하는 공연관람
 - 3주 : 관람공연의 주제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보는 연극무대

□ 프로그램 특징

- 지역과 문화공간 활용의 극대화 : 서울연극센터+대학로 연계
- 살아있는 공연장이라 일컫는 대학로의 문화적·역사적 배경과 연극을 중심으로 한 공연예술 자원을 교육적으로 활용
- 교육효과 및 수혜자 확산성 유도
- 2주차 교육진행 시, 가족과 함께하는 연극관람, 배우와의 만남, 소극장 체험, 대학로 투어 등 현장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연극에 관한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고, 부모, 형제 등 가족과 함께 투어참여를 통해 교육효과의 시너지 및 수혜자 확산 도모
- ※ 단, 추후 3주간의 교육진행 기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및 논의 필요

[청소년 연극투어 진행 현장]



2> 공모지원 프로그램 우수사례

□ “사계절 테마여행”

- 교육단체 : 찾아가는 연희극단 너영나영
- 교육장르 : 통합(연극, 사진, 음악, 무용)
- 기획의도 :
 - ① 주5일제가 되면서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부모나 생활이 어려운 아동들에게 지역 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아동들에게 보다 많은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 ② 통합예술교육을 통해 다양한 예술장르를 체험하고 공연 만들기 과정을 통해 자존감과 창의성을 높인다.
- 운영기간 : 일반공모 2013.03.02~12.21(기수별 8회, 총 4기 운영)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 2014.01.11~02.22(6회)
- 교육대상 : 초등학생 1~6학년, 학부모(가족)
- 교육내용 : 사계절을 주제로 다양한 예술 퍼포먼스 및 연극사진음악무용의 모둠별 체험을 통해 예술경험 확장 및 발표회·교류수업·부모님 연계 수업을 통한 미적 성취감 경험
- 교육장소 : 서울시 마을예술창작소 ‘창고’ (도봉구 소재)와 다년간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장소대관, 참가자모집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협조에서 나아가, 도봉구 지역이 토요일문화학교를 통하여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음

[사계절 테마여행 진행 현장]



[사계절 테마여행 수업계획안] : “봄” 테마

차시	주제	내용
1	오리엔테이션 및 마음열기 다양한 예술분야 경험하기 1	- 수업 소개 및 연극 게임 - 음악, 무용 장르 경험하기
2	다양한 예술분야 경험하기 2 공연 관람	- 연극, 사진 장르 경험하기 - 연극 “꽃들에게 희망을” 관람
3	연극 놀이 (다같이)	- 상상과 변형 (막대) ■ 연극 : 인물 성격 구축하기(검은 애벌레, 노란 애벌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르별 모듬 수업 - 키워드 선택하기 	<p>애벌레 인형 만들기, 핵심 장면 만들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 : 카메라사용법 배우기, 셔터와 조리개를 이용한 촬영하기, 촬영주제 및 장소정하기 ■ 음악 : 악기 연주 방법 및 '봄'에 부르고 싶은 동요 또는 민요 선택하기 ■ 무용 : 봄에 관한 키워드 뽑기, 키워드를 이용하여 모듬별로 주제 정하기
4	<p>무용 놀이 (다같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르별 모듬 수업 - 시놉시스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 : 검은 애벌레가 노란나비를 본 순간 나비가 되어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은? 장면 만들기 ■ 사진 : 소품분류하고 촬영하기 ■ 음악 : 선택한 동요 또는 민요를 가지고 연주 및 노래하기 ■ 무용 : 주제를 움직임으로 표현하기
5	<p>사진 놀이 (다같이)</p> <p>모듬별 발표회 준비 및 교류수업</p>	<p>- 각 모듬에서 장면 만들기에 필요한 다른 장르 수업 경험해 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 : 나비춤 만들기(무용과 교류수업) ■ 사진 : 촬영 주제에 맞는 그림자놀이 및 실루엣 촬영 ■ 무용 : 만들어 본 움직임에 얼굴 표정 및 연극적 표현도 첨가하기(연극과 교류수업)
6	<p>음악 놀이 (다같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르별 모듬수업 - 발표회 1차 리허설 	<p>- 장단 놀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 : 공연준비 마무리 단계 ■ 사진 : 편집 이해하기(사진선택, 순서/배열, 음악선택 등) ■ 음악 : 공연준비 마무리 단계 ■ 무용 : 공연준비 마무리 단계
7	<p>최종 리허설</p> <p>부모님과 함께 하는 발표회</p>	<p>- 모듬별로 발표회 리허설을 한다.</p> <p>- 다 같이 만드는 "봄 퍼포먼스"</p>
8	<p>'나만의 공연 리플렛' 만들기 (북아트)</p>	<p>- 공연 동영상 보기</p> <p>- 공연 및 8차시 현장사진을 출력하여 원하는 사진을 고르고 글을 적어 책을 만든다.</p> <p>- 수료식</p>

3> 예술강사 역량강화와 토요문화학교 사업 간 연계

: 2013 학교예술강사 역량강화 연구모임(CoP) 지원사업 **소소익선(小小益善)***

* 소소익선 :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는 의미로, 소규모 기반 공동학습이 단계적 성장을 거쳐 큰 변화를 이끌어냄을 의미

추진방향

- 예술강사 역량강화 및 문화예술교육 신규 콘텐츠 개발
- 청소년 대상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 수요 반영
- 연구결과의 활용성 강화를 위한 센터 사업과의 연계 및 지역내 확산망 구축

지원내용 : 1팀 5인 이상, 서울소속 예술강사 3인 이상 포함

프로젝트 연구개발 지원금 1팀당 최대 4,000천원 지원

연구기간 : 2013. 9 ~ 12월(약 4개월)

- 연구주제 : 청소년 놀이문화와 여가활동에 대한 신개념 예술 프로그램 연구
 - 서울의 문화공간, 지역적 소재를 활용한 프로그램
 - 중학생 대상에 특화된 소통/체험형 프로그램
 - 단일 또는 융합형 예술 장르가 매개된 입체적 프로그램
 - 내용적 연계성을 가진 8회차 이상의 연속 프로그램
- 경과 및 성과
 - 신청한 13개 팀 중 5개 팀 선정하여 연구 활동 진행
 - 연구과정에 마스터멘토를 팀별로 매칭하여 연구방향 등에 지속적 도움 제공, 연구결과물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연(모의수업)을 필수로 거치도록 함
 - 2014 토요일문화학교 공모지원을 통하여 5개팀 중 1개팀인 ‘시티워커스(City Walkers)’가 선정되어 현재 중학생 대상 <초록 위에 서다(사진장르)> 프로그램 운영 중
 - 예술강사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CoP지원 확대 및 지속의 중요성 제고

[2014년 예술강사 CoP 지원사업]

구분	자발적 학습모임(Community of Practice) 지원	
	연구형 CoP	활동형 CoP
추진 방향	<p>‘13.05.교육부 발표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운영계획”관련, 2016년 제도 확정 및 전면 실시 로드맵에 따라, ‘진로탐색, 체험, 참여(토론실함실습)활동’ 방식의 예술교육프로그램 현상수요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음. 이에, 협동교수(Co-Teaching), 협력학습(Co-Learning), 블록(Block)타임제 유형의 교수/학습운영이 가능한 예술교육 콘텐츠를 공동 연구하여 개발 하도록 함</p>	<p>예술간 또는 예술+교과간 융합수업을 위한 사전단계로 타 예술분야에 대한 경험과 이해의 폭 확대 필요. 보유하고 있는 <u>전문 인적자원(예술강사)</u>을 활용하여 예술강사 서로의 전공분야를 상호 지도/학습하거나 강사 간 공동 예술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자양분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함</p>

3> 시사점 및 발전방향

-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속적 연구 및 실행 필요
 - 초등학생(특히, 저학년) 대상 프로그램은 공급과 수요가 활발한 것에 비하여,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은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실정
 - 센터가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기획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파급하는 역할
- 지역의 풍부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프로그램 운영
 -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획
 - 재단 내 타 부서 및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유니크하고 우수한 프로그램 기획
- 다양한 ‘시도’가 실제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사업이 단순히 연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 간 연계를 통하여 실제 교육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임
 - 토요일문화학교, 지역특성화,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등 예술교육 전문 인력들의 프로그램 연구개발 활동 결과 실효성 제고

지역문화예술교육을 향한 라운드 테이블 워크숍 : 주제 2

밑 빠진 독에 물 부으리!

- 경기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중심으로

- 장혜윤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밑 빠진 독에 물 부으리!

- 경기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장혜윤(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1. 서론

저는 지역특성화라는 언어를 쓸 때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기분이 듭니다.

경기도에서 ‘지역(local)이란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행정적인 경계로서의 지역부터, 문화유산 등 관광자원으로서의 지역, 정치적 입장에 따른 지역, 동네를 구분 짓는 지역, 이웃과 함께 사는 지역 등의 개념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 주관적인 나열일 뿐 학술적인 개념, 사회·경제·정치·문화적 개념, 사람들마다의 일상적인 개념까지 포함한다면 ‘지역’이란 무엇인가를 새롭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역’에 붙은 ‘특성화’란 무엇인가를 물어오는 사람들과 시간을 마주할 때면 옆친데 덮쳐오는 카오스 안에서 헤매는 기분이 듭니다. 물론, 실무 담당자에게 한 줄기의 빛이 있다면 그것은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설명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한줄기 빛도 ‘지역의 어떤 특성’, ‘무엇을 살려야 하는가’, ‘문화예술교육의 역할’, ‘문화예술교육이란 무엇인가’의 질문 앞에서는 그나마 있던 빛과 힘도 바래고 맙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광역센터 담당자에게도 지역 예술가와 활동가들에게도 ‘지역’을 알고 싶고(알아내야만 할 것 같고) 묻고 싶은(물어야만 할 것 같은) 호기심과 조바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은 무엇인가’, ‘왜 하는가’의 질문이 오가는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마주할수록 ‘지역을 만나는’ 예술가, 기획자들의 시선을 눈여겨보게 되고 생각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미 이전에도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기반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광역센터로서의 질문과 방향을 담아낼 수 있는 여지가 적었다고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3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지역을 눈여겨보고 지역에 귀기울여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던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기획 의도가 담긴 작은 걸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문화예술교육의 의미와 광역센터의 역할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2013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 2014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과 보완점, 모니터링 구성 방식, 고민 등을 순차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2. 본론

(1) 2011-2014년 경기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변천사

구 분	2011년	2012년
사업명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지원내용	○일반공모 : 개별 프로그램 지원 ○기획공모 :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지원	○일반공모 : 개별 프로그램 지원
심사방식	○1차심사 : 진흥원(arte) 주관 ○기획워크숍 및 2차 심사 : 광역센터 주관	○1차심사 및 기획워크숍 : 광역센터 주관 ○2차심사 : 광역센터·진흥원 공동 주관
사업관리	○사업평가 : 단체별 역량평가 시행	○사업평가 : 단체별 현장모니터링 실행, 지원사업 비평 및 홍보(지지봄봄 웹진 연계)
예산	○358,000천원 ○국비+도/시·군매칭(운영비 없음)	○528,000천원 ○국비+도/시·군매칭(운영비 없음)
지원단체	18단체	25단체
구 분	2013년	2014년
사업명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Moving School:깊고 심심한 동네 관찰기행'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깊고 심심한 동네 읽기(그리고 잇기)'
지원내용	○일반공모 : 개별 프로그램 지원	○일반공모 : 신진단체, 신규 프로그램 지원 ○기획공모 : 장기적 비전 수립·실행이 가능한 단체 연속지원, 기초문화재단(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
심사방식	○1차심사 : 광역센터 주관 ○2차심사 : 광역센터 주관, 진흥원 협조	○1차심사 : 광역센터 주관 ○2차심사 : 광역센터 주관, 진흥원 협조(선택)
사업관리	○사업평가 : 단체별 현장모니터링 실행, 지원사업 비평 및 홍보(지지봄봄 웹진 연계) ○결과워크숍 및 집담회 진행, 현장모니터링 피드백, 결과자료집 제작	○사업평가 : 단체별 현장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행, 지원사업 비평 및 홍보(지지봄봄 웹진 연계) ○기초문화재단 연계 모니터링 운영, 권역별 집담회, 워크숍 진행, 모니터링 피드백, 결과자료집 제작
예산	○468,000천원 ○국비+도/시·군매칭(운영비없음)	○468,000천원 ○국비+도/시·군매칭(운영비없음)
지원단체	23단체	29단체(기초문화재단포함)

■ 2011년에서 2014년도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광역센터(경기문화예술교육센터)로 사업의 운영 형식이 어떻게 이관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광역센터가 사업관리(평가)의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의 현안과 고민을 담은 기획 및 심사, 사업관리가 가능해진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산 비율 및 예산 구조에 큰 변화가 없다는 한계 속에서는 지역의 균형을 고려하기에도 어렵고 광역센터의 역할을 확장하기에도 어려운 구조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2013년 - 2014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주요 추진 내용 (공통)

① 사업 목표

- ‘공간’, ‘지역’을 키워드로 지역의 유무형의 자원을 조사·탐색하여 지역사회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지역에 대한 이해를 통해 주민들의 커뮤니티를 모색할 수 있는 과정으로, 지역 자원 및 가치, 생활문화공간을 디자인하는 학습 기반 조성
- 지역 문화예술교육 매개자와 주민들의 자발적인 모임·활동 촉진 및 지역 문화예술교육 수요처 발굴

② 지원 추진 방향

- 대상지(동네, 지역, 주민수요 등) 선정, 조사, 공간탐색, 연구, 운영 방향 등을 고려한 기획·구성(디자인) 과정형 프로그램 설계
- 유무형의 지역자원(지역 환경, 거점, 사람, 길, 관계, 가게, 시장, 골목, 담 등)과 가치를 배움의 장으로 연계 활용
- 인간, 삶, 환경, 생태 등 사회와 지역의 갈등 해결을 모색하는 예술적 솔루션에 비전을 둔 지역 커뮤니티 형성
- 참가자가 학습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매개자와 함께 활동하며 만들어가는 지역 문화 예술교육 활성화

③ 예산 규모 및 집행 구조

- 국비+도비+시·군비 매칭 (운영비 편성 없음) / 지원금 예산 : 468,000천원
- 공모·심사 진행 :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교부·정산 진행 : 해당 시·군

④ 현장 모니터링

- 각 1단체당 모니터링 위원 1인 매칭 (문화예술교육 분야 전문가 및 활동가)
- 컨설팅을 겸한 현장 모니터링 진행

(3) 2013년 운영 관련 문제점 및 2014년 운영 관련 보완점

구 분	2013년 운영 관련 문제점	2014년 운영 관련 보완점
공모형식	○ 일반공모 : 1년 단위 사업 지원 - 연속성·지속성 관련 지원 계획 부재 - 신진단체 및 신규 프로그램의 진입 장벽이 높은 공모·심사 방식	○ 일반공모 : 신진단체 및 신규 프로그램 우대 - (Moving Shcool) 진입 단계 마련 ○ 기획공모(신설) : 2~3년 연속 지원 및 기초문화재단 연계 지원 - (동네너머학교) 중장기 지역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네트워크Studio) 기초문화재단 연계 네트워크 프로그램 활성화

구 분	2013년 운영 관련 문제점	2014년 운영 관련 보완점
운영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운영비 내 예산 : 6,260천원 ○ 별도 운영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운영비 내 예산 : 7,586천원 ○ 별도 운영비 없음 ○ 선정 기초문화재단 연계(네트워크 Studio) 모니터링 예산 책정 (각 5,000천원 3곳/총 15,000천원)
시·군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 시·군마다 다른 정산 기준으로 혼란 가중 ○ 교부·정산 관련 단체와 시·군 담당자간 소통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담당자 대상 간담회 진행 ○ 경기도 통합 운영지침 및 정산서식 배포 ○ 단체와 시·군간의 소통 중재 센터 역할
단체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의견 수렴 창구 미비 ○ 정산 및 정산 서식 간소화 필요 ○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자문 필요 ○ 단체 간의 내용 공유 및 네트워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단체 대상 안내 메일 발송 및 단체 의견 수렴 진행 ○ 정산 관련 오픈 소스 제공 및 통합 운영지침 배포 ○ 컨설팅을 겸한 모니터링 진행 및 자문위원 추천 ○ 지지봉봉 연계 현장 내용 공유, 권역별 집담회 진행 및 중간워크숍, 결과워크숍을 통한 네트워크 구성
기초문화재단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문화재단 연계 파트너쉽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문화재단 연계 권역별 거점 파트너쉽 마련 (연속지원 및 순차지원 고려) ○ 기초문화재단 기획사업(네트워크 사업) 지원 및 지역특성화 모니터링 연계 진행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위원 : 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단체 중 19단체 모니터링 진행 (4단체 대상 모니터링 리뷰 없음) - 1회성 현장모니터링의 한계 직면 ○ 모니터링 양식 : 진흥원 양식 활용 ○ 시·군 대상 모니터링 내용 안내 미비 ○ 단체 대상 모니터링 내용 안내 미비 ○ 모니터링 피드백 환류 체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위원 : 1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1단체 매칭 (26단체 매칭) - 현장모니터링 2회, 권역별 집담회 1회 (총 3회 모니터링 진행) - 1차 현장모니터링(컨설팅 중심) / 2차 현장모니터링(평가 중심) ○ 모니터링 양식 : 센터 자체 양식 활용 ○ 시·군 대상 모니터링 내용 안내 진행 ○ 단체 대상 모니터링 내용 안내 진행 ○ 권역별 집담회 및 결과워크숍을 통한 모니터링 피드백 환류 체계 마련 ○ 기초문화재단 상호 모니터링 예정

(4) 2014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모니터링 계획 특징

① 기초문화재단과의 파트너쉽 마련 (기획공모 : 네트워크 Studio)

- 공모 계획 수립 단계에서 기초문화재단과의 사전 논의 진행
- 기초문화재단 지역 및 인근지역을 포괄하는 네트워크 거점 역할 필요 공유 및 합의
-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총괄하여 경기북부권(고양문화재단), 경기남서권(부천문화재단), 경기남동권(안양문화예술재단)으로 거점별 모니터링 및 집담회 협력 진행
- 사전워크숍을 통해 기초문화재단 담당자와 지역 단체와의 만남의 장 마련
- 현장 모니터링 방문 및 집담회를 통해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기초문화재단간의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현장 내용 공유 및 교류 예정

② 기초문화재단 연계 모니터링 예산·집행 구조

- 시·군 예산 매칭으로 별도 운영비 책정이 어려워 ‘네트워크 Studio’ 선정 기초문화재단과 연계하여 부족한 모니터링 운영비 보완
- 기초문화재단(1곳당) 지원금 20,000천원 중 기획사업 관련 15,000천원 예산 편성, 모니터링 지급수수료 및 행사운영비 관련 5,000천원 예산 편성
- 기초문화재단은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사전 협의를 통해 모니터링 관련 비용 지출

③ 시간성을 고려한 현장 모니터링

월	2	3	4	5	6	7	8	9	10	11	12
기본사업 과정	사전 워크숍	교부(시·군) 사업초기실행 (모집/연구/실행)			사업 실행		중간 워크숍	사업 실행		결과 워크숍	사업종료 결과보고 정산
네트워크 스튜디오		교부신청/교부/ 사업초기실행		네트워크 프로그램 진행						결과 워크숍	
모니터링 방담회				모니터링 방담회1차			모니터링 방담회2차			모니터링 방담회3차	
단체대상 모니터링					현장 모니터링1 (컨설팅 중심)		모니터링2 (권역별 집담회)		현장 모니터링3 (컨설팅+평가 중심)		

- 현장 모니터링 2회(5~7월, 9~11월), 권역별 집담회 1회(7~8월) 진행
- 현장 모니터링은 단체의 특징 및 사업의 현안에 따라 컨설팅을 겸하는 현장 모니터링 진행 (사전에 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모니터링 위원에게 공유)
- 권역별 모니터링 집담회는 기초문화재단을 거점으로 인근 지역을 포괄한 6~8개의 단체 사업 내용 및 고민을 공유하는 집단 모니터링 형식으로 진행

④ 모니터링 위원 운영

순번	이름	소속 및 직위	비고
1	임학순	카톨릭대학교 교수(문화정책)	신규
2	소홍삼	의정부예술의전당 공연기획부 부장	신규
3	김지연	프락시스 대표	신규
4	김태황	문화예술교육(미디어교육) 기획자	신규
5	신승환	카톨릭대학교 교수(예술철학)	신규
6	정원철	추계예술대학교 교수	심의위원
7	이원재	문화연대 정책센터 센터장	심의위원
8	김노경	수원영상미디어센터 센터장	심의위원
9	박형주	하자센터 기획부장	심의위원
10	강원재	OO은 대학 연구소장	지지봄봄편집위원
11	고영직	문학평론가	지지봄봄편집위원

- 현장의 연속성을 위해 지지봄봄 편집위원 및 심의에 참여한 심의위원, 기초문화재단 추천 전문가로 새로운 구성원을 포함하여 구성
- 단체의 지역 및 의견 등을 고려한 전문가 모니터링 위원 1인 1단체 매칭

- 모니터링 위원 방담회 운영 (모니터링 안내/ 모니터링 중간 점검/ 결과 공유)
- 현장모니터링 일정에 따라, 모니터링단 1인 외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담당자 및 '네트워크 Studio'에 참여하는 기초문화재단 담당자와 함께 현장 방문 진행

(5)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문제들

① 시·군 매칭 예산 구조로 인한 어려움

- 시·군의 예산 현황 및 관심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므로 경기도 내 지역 균형을 고려할 수 없음.
- 시·군과 단체간의 이해 부족 및 암묵적인 불신으로 소통의 한계가 있음(서로에 대한 이해의 장, 협력을 위한 가치 공유 필요)
- 교부 및 정산 관련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책임 및 권한이 없음. (늦은 교부 시기 등)
- 지역의 현황과 규모가 고려되지 않은 광역센터 운영 예산에서 총당하는 부담이 가중됨.

② 문화예술교육과 일자리 창출 사업의 상관관계

- 문화예술교육 분야는 일자리 창출 사업?
- 지역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일자리 디자인? 일자리를 통한 지역 문화예술교육 디자인?
- 고용주와 노동권은 말하기 애매한 연간계약활동가, 그들은 노동자인가 활동가인가
- 그만두거나 떠나는 기획자와 실무자들. '간헐적' 일자리 사업 구조에서 문화예술교육은 어떻게 될까?

③ 공모 지원사업의 한계

- 거기서 거기, 그렇고 그런, 주제와 프로그램 내용·형식들의 반복
- 지속성과 연속성을 위한 지원금, 자립과 의존 사이 지원금의 역할은?
- 문화예술교육 제도화 10년, 새로 진입하는 매개자들은 누구이며 얼마나 될까?

④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이란?

- 지역특성화? 대상특성화? 지역컨텐츠? 지역특산품? 지역미디어? 지역문화예술교육?

3. 결론

2013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Moving School : 깊고 심심한 동네 관찰 기행'은 저마다의 '깊고 심심한' 관점으로 지역을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2014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깊고 심심한 동네 읽기(그리고 잇기)'라는 주제를 통해 배움의 장(Moving School)으로서의 지역이 지닌 장소성과 지역 커뮤니티의 생동성을 지원하고자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모니터링'이라는 단어가 지닌 이중 언어(컨설팅과 평가)의 속성을 활용하되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감시와 평가의 체계가 아닌 역량강화와 기회의 체계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며 모니터링 구성 체계를 보완하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은 현장 관찰 및 평가 기능이 요구되므로, 보다 상호수평적이고 보완적인 모니터링 방식을 고민하게 됩니다.

지난해,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참여 단체들과 2차례에 걸친 결과 집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과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관한 단체들의 고민과 생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기 위해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2013년, 2014년 경기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목표는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2014년의 경우 사업 목표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현황에 관한 문제의식을 보완하는 대항적 문화예술교육 지향’한다는 부분입니다. 자칫 오타처럼 보일 수도 있는 ‘대항적’인 언어를 사용한 것은 ‘대안적인 논의’를 넘어 ‘대항적인 실천’이 가능한 지역문화예술교육을 요청하고 싶었습니다.

‘대항적인 실천’은 무엇이며 ‘대항적 문화예술교육’은 무엇인가, ‘누구에게 요청하는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광역센터만의 몫이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교육 단체와 예술가, 기획자들과 함께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지역문화예술교육을 쉬이 말할 수 있지만, 누구와도 지역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깊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도 안에서 문화예술교육을 기획하고 실행하지만, 문화예술교육 제도에 관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현장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해야만 대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도시에서 전환운동(Transition movement)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의 기원은 영국에서 발생한 전환마을(Transition town)이지만, 전환운동에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보다 ‘서로를 보살피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데 초점’을 맞춰 지구적이고 지역적인 관점으로 주민 참여가 활발히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지역 안에서 서로를 보살피며 삶의 능력을 재건하는 활동(노동과 교육, 축제 등)이야말로 지역문화예술교육의 한 면모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실무자로서 바라보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밑 빠진 독’처럼 여러 문제와 질문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독이 텅 비거나 메마르지 않는 이유는 끊임없이 물을 붓는 ‘의리’의 사람들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소명과 의미를 따라 지역을 잃어가고 일궈가는 실천들, 이웃을 만나고 이웃을 만들어가는 예술적인 과정들, 지역과 동네를 경작하려는 마음들이야말로 ‘으리으리한’ 힘이라 느껴집니다.

이 으리으리한 힘들로부터 밑 빠진 독과 같은 개념들을 깨트리거나 던져볼 때, 앞으로의 지역문화예술교육은 어떤 면모와 방향으로 흘러넘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지역문화예술교육을 향한 라운드 테이블 워크숍 : 주제 3

마을에 사는 사람들

- 인천 지역기반 문화예술교육 기획사업을 중심으로

- 장문정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마을에 사는 사람들

- 인천 지역기반 문화예술교육 기획사업을 중심으로

장문정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초기의 문제의식 : 프로그램 공급자 중심 문화예술교육의 한계

『아시는 바대로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불리는 문화예술교육은 교육단체가 시설이나 기관의 구성원,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학습자는 시설의 구성원이거나 시설에서 모집한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겨지겠지만, 사실 이런 방식은 교육보다 흥행 사업에 더 잘 어울리는 방식입니다. 흥행 사업에서 기획자는 좋은 작품(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많은 관객(학습자)을 불러 모으면 그것으로 충분히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좋았어요.” “또 보고 싶어요.”라는 평이 평가의 척도입니다. 실제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 냈는지는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 그 성과(교육 효과)를 앞으로 어떻게 살려갈 것인지는 그저 각자 알아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한시적으로 모였다가 흩어지는 지금 방식에서 그런 관심을 가질 수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심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실제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으니깐요. 지금 조건에서는 커리큘럼이라고 할 만한 장기적인 교육과정을 상상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단체로서는 그저 다른 대상과 소재를 찾아 프로그램을 재구성하는 것이 최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문화예술교육에 팔을 걷어붙인 지 10년이 다 되어가지만 대부분 초보적인 체험교육 수준에 머무르는 것은 이러한 한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표신중 (인천문화예술교육통신 Vol.15_마을 단위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첫 발걸음 중)

1.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이벤트형 교육

2010년 7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광역센터로 이관되기 이전에 ‘마을의 일상과 만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다문화 프로그램’,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지금 생각하면 조금 어설픈) 3개의 영역으로 자체 지원사업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다. 그땐 마을이나 문화기반시설을 정확하게 어느 영역으로 설정하고 접근해야 하는지조차 몰랐던 시기여서 그냥 내가 가진 관점은 프로그램과 (혹은 그 대상에 맞는 프로그램을 잘 기획할만한) 사람을 갖고 이를 잘 받아줄만한 여러 단체와 기관들을 열심히 만나고 다녔던 것 같다. 그리고 당시에 (내 생각으로는) 제법 지역에서 건강한 단체라고 생각했던 부개동 지역의 평화의료생협 사무국장님이 나의 제안을 거절하며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정말 좋네요. 그런 것들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헌데 올해 그 사업을 같이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음 해, 또 그 다음 해에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렇게 프로젝트 사업으로 한번 휘젓고 간 다음에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같이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말이 지역 센터의 실무자로서 문화예술교육의 “지속가능함”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그렇게나 수차례 반복되어 이야기되는 자생력이라는 문제 말이다.

2. 협력자가 없는 지역 교사그룹

어쩌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의 부재와도 연결될지 모르겠다. 사실 현재의 지원제도 안에서 교사그룹의 실질적인 파트너는 공부방, 작은 도서관, 복지시설, 시민단체 등 지역의 구심 역할을 하는 곳일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지역 구심 역할을 하는 곳들은 주민들의 일상생활, 삶 전반과 관계 맺고 있기 때문에 지역 교사그룹의 좋은 파트너로써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자의 삶과 지역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과정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을 받아들이고 지켜보는 것보다는 대개는 그들이 하고 있는 여타 다른 수많은 프로그램과 행사들처럼 문화예술교육 또한 수동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현재 학교예술강사사업의 일환으로 예술강사를 지원받고 있는 학교들의 상황도 비슷하다.

『3년차인데, 해마다 느낌이 다르다. 점점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바빠진다. 사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생활을 하는 것인데, 프로그램을 너무 프로그램화 시켰다는 생각이 든다. 정말 분절되지 않았는가. 지역아동센터는 결국 큰 가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인데, 가정에서 엄마들이 단기적이고 분절적으로 프로그램을 하지는 않지 않은가. 우리는 너무 사업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던 것 같다. 이것에 참여하기 전에는 아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문화예술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참여하면 아이들에게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했다. 헌데,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이런 프로그램 해요’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이들이랑 이렇게 생활해요’가 자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체성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임정숙(2012 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 기획협력사업 ‘지역아동센터 생들의 켜켜한 문화예술교육 만들기’에서)

3. ‘지역에서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교육과정을 고민할 수 있는 주체의 필요

『지역의 구심 역할을 하는 곳들은 주민들의 일상생활, 삶 전반과 관계 맺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교육단체와 다른 관점에서 문화예술교육에 접근하게 됩니다. 이들은 프로그램 하나 하나의 성과를 넘어, 참여자의 삶과 지역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지역공동체의 상황에 따라 중요하거나 시급한 프로그램을 고를 수 있고, 아예 교육단체와 새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문화예술교육은 개인, 동아리, 지역사회를 장기적으로 변화시키고, 문화적으로 풍요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참여자의 삶 전체를 이해하고 지역사회 전체를 바라볼 안목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들이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가능해 집니다. ‘지역에서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교육과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시설(기관, 단체)들이 그런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능동적인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지역시설(기관, 단체)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일은 멀고 험난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들과 함께해야 하는 이유는 문화예술교육의 궁극적인 목적과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들의 목적이 결국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기반 문화예술교육 기획협력사업”은 문화예술교육의 관점을 프로그램 공급자 중심에서 학습자,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전환하는 첫 시도로 기록될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 문화예술교육과 지역에서의 삶이 깊은 연관을 맺을 수 있도록 마을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이를 구체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지닌 사업이기도 합니다.』

표신중 (인천문화예술교육통신 Vol.15_마을 단위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첫 발걸음 中)

2012-2013년 지역기반 문화예술교육 기획사업

사업 소개

사업 목적

- 마을 내 문화예술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주체 형성
- 문화예술교육 마을자원네트워크 구축과 탈 시설형 통합연계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생활영역권 내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환경 조성

사업 방향

- 마을만들기 및 주민자치활동이 활발한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문화영역권 내 문화예술교육 마을자원네트워크 기반 구축 가능성 검토 후 지역선정
- 사업대상지와 기획방향을 협의하여 프로젝트 매니저, 주관단체 선임, 지원약정 체결
- 1차년도는 마을자원 조사와 네트워크 구성에 집중하고, 2차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2개 지역 2개년도 지원)

사업 내용

- 사업방향 : 마을에 문화예술교육이 자생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탈 시설형 통합연계 구조 마련
- 운영내용
 - = 마을의 환경과 욕구 조사
 - = 마을 내 인적 자원을 구성하여 지역별 네트워크 회의
 - = 지역별 주관단체, 프로젝트 매니저, 사업 담당자, 컨설턴트가 함께하는 관계자 운영 회의
 - =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수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기록 활동 진행
 - = 마을 내 기관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축제 등을 진행
 - = 마을 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관계망을 형성하기 위해 워크숍, 간담회 등을 개최

2012년

순서	진행내용	실행체계
1단계	프로젝트 매니저(PM) 선임 및 계약 체결	센터
2단계	기초네트워크 구성	센터, PM
3단계	주관단체 선임 및 지원약정 체결	센터, PM ↔ 네트워크
4단계	지역자원조사 및 욕구조사	PM, 네트워크, 센터(협력)
5단계	문화예술교육 관련 파일럿 프로그램 개발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	PM, 네트워크 센터
6단계	마을자원 네트워크 확장 프로그램 시범운영	PM, 네트워크, 센터(협력)
7단계	평가워크숍	센터 PM, 주관단체 → 센터

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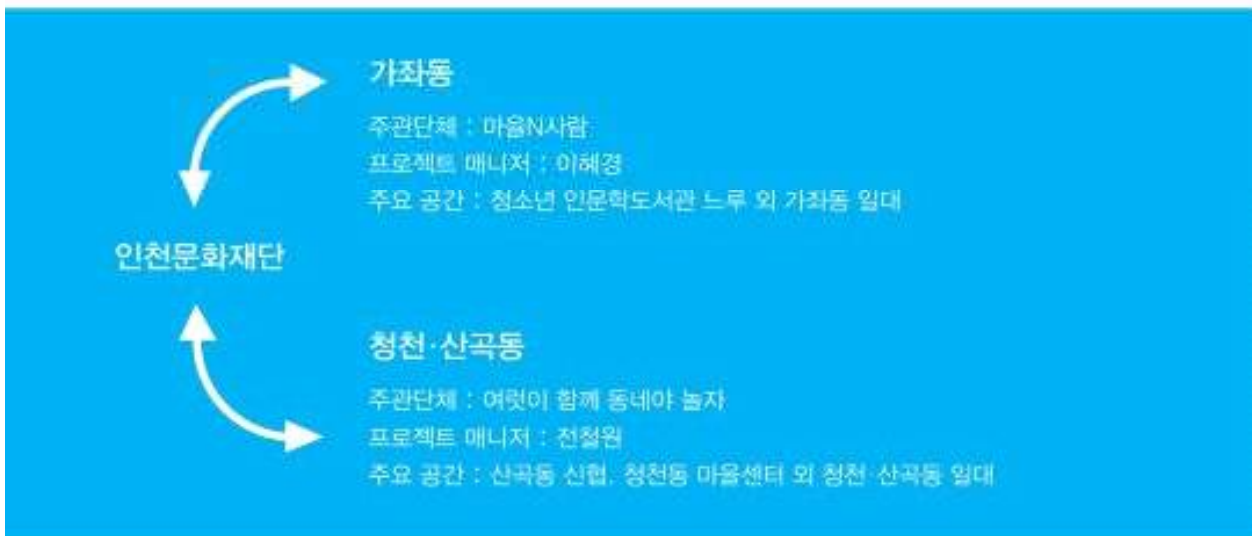
순서	진행내용	실행체계
1단계	프로젝트 매니저 선임 및 계약 체결	센터
2단계	주관단체 선임 및 지원약정 체결	센터 ↔ PM, 네트워크
3단계	지역별 네트워크 회의	PM, 네트워크, 센터(협력)
4단계	관계자 운영회의 전문가 모니터링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단계	지역기반 기획사업 성과 포럼 개최	센터 PM, 주관단체 → 센터

누구와 무엇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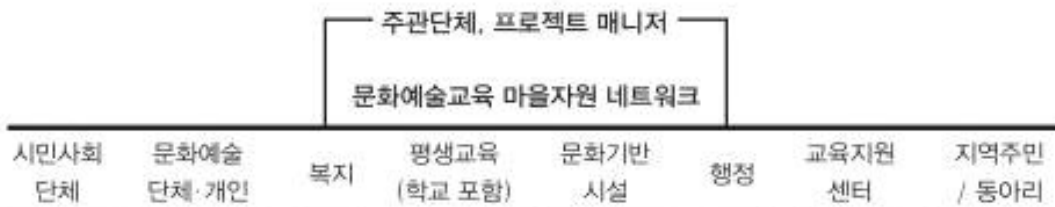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소소한 관계망 형성

마을에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문화예술을 일상으로 경험하고 함께 배우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고 싶은 마음.

인천문화재단과 인천의 두 지역(가좌동, 청천·산곡동), 만나다.



마을에는 무엇이 있으며 누구와 함께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마을 자원조사와 사람들과의 관계망의 형성을 시작하다.



어떻게?

지역+문화예술교육, 큰 그림 그리기

사람을 만나다



무엇을 할지 의논하다



함께하다



고민하고 생각하다,
꿈꾸다

- ● ●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구축에 관심이 있는 활동가
마을을 위해 힘쓰는 단체 및 행정가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예술가
문화와 교육에 관심이 있는 마을 주민
즐겁게 놀고 싶은 어린이

- ● ●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구축에 관심이 있는 활동가
마을을 위해 힘쓰는 단체 및 행정가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예술가
문화와 교육에 관심이 있는 마을 주민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싶은 어린이

- ● ● 매주의 프로그램
종종 있는 회의
모임과 축제
그리고, 일상 속에서의 반가운 만남

- ● ● 이게 재미있었지!
문화예술은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다음에는 무엇을 할까?
마을에는 무엇이 더 필요하지?

성과와 과제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의 네트워크가 필요한 이유는 단지 모자라는 역량을 서로 벌충(罰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네트워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정된 자원을 극대화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효율성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의 연대와 협업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폭과 깊이를 확장함으로써 끊임없이 상상력을 확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마을 단위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네트워크는 한 마을의 구성원들만으로, 혹은 한 마을의 문화예술교육만을 위해 구성되는 네트워크는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그보다는 학습자 중심, 지역 단위 교육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내기 위한 네트워크요 삶의 총체성을 드러내고 개인은 물론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새로운 차원의 교육을 위한 네트워크여야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인, 단체를 넘어 과학기술, 경제, 사회 등 제 분야를 포괄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의 외연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기반 문화예술교육 기획협력사업>에서 네트워크 형성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한 것은 소재와 방법론에 매몰되어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되묻고 그 해결의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소중한 시의적절한 기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표신중 (인천문화예술교육통신 Vol.15_마을 단위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첫 발걸음 中)

- ① 마을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의 목표와 실천과정에 대한 합의
- ② 네트워크의 구성원과 역할

『기관이나 단체와 사람들 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에 진을 다 빼고 나면 실속보다 형식피로가 가중된다. 판을 벌리는 게 먼저고 필요한 것들을 후속으로 협력한다』

박찬국(2012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성과자료집 中)

- ③ 마을예술교육의 운영주체(기획자)의 역할정립과 양성
- ④ 지역교사 발굴과 훈련
- ⑤ 행정단위 협력시스템 구축

※참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 보아요 : 마을 문화예술교육에서 기획자의 필요성과 역할

[참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 보아요

: 마을 문화예술교육에서 기획자의 필요성과 역할

청천·산곡동 프로젝트 매니저
전철원(여백)

□ 마을에서의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 속에서도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에 대한 몇몇 사회적 동의지점들이 차츰 만들어져왔다. 그 중 중요한 하나가 ‘문화예술교육이 오늘날 세계가 당면한 사회적 및 문화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서울 아젠다: 예술교육 발전목표’ 서언 중)’ 는 믿음이다.

여기서 사회적, 문화적 과제가 무엇이냐는 또 다시 논의의 대상이고, 당연히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과정 또한 논쟁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과제를 마을과 관련한 의제로 한정하면 대략 ‘마을에서의 공동체성 형성과 회복, 인간적인 삶의 지평 확보’ 정도로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때 실천과정이 우선적 도달 목표로 설정해야 하는 건 두 가지가 된다.

1) 관계성의 형성

한국사회가 치달아온 산업화와 무한경쟁의 길은 계층별 세대별 단절은 물론 동세대 안에서조차 개인의 고립을 만들고 있다. 청소년들은 주변의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좋은 대학에 진학해야 하고, 청년들은 좋은 직장에 취업해야 하는 것이 당면과제처럼 부여된다. 혼자 살다 혼자 죽는 무연사회로의 진행은 이미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삶에서 맞닥뜨리는 많은 문제들에 함께 대처하지 못하고, 오로지 혼자만의 노력과 재능만으로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사회를 살아가는 일은 너무 큰 고통이다. 이러한 심적 육체적 고립이 한국사회를 우울과 피로와 무기력 속에 몰아넣고 있는 주범이다.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로서 타자와의 상호 신뢰 회복과 삶의 연대를 되찾지 않는다면 이러한 고립무원의 처지에서 벗어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때문에 마을은 고된 노동을 마치고 돌아와 피로한 몸을 잠시 쉬었다 나가는 무의미한 공간을 넘어서야 한다. 동일 시공간에서 비슷한 현실과 처지에 놓인 이들이 서로를 살피고 나누며 삶의 의미를 생산하는 가치실현의 장소로 바뀌어야 한다. 이런 변화는 서로에 대한 의미 있는 관찰과 대화, 공동의 활동 경험과 공동의 문제해결 과정을 거쳐야 가능하다. 그 속에서 자신의 삶 밖에서 의미 없는 타자에 불과하던 이들이 서로에게 ‘우리’로 존재 하게 된다. 즉 관계성을 갖게 된다.

2) 장소성 형성

엄밀하게 말해서 도시화 이후 인천에서 마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노동의 현장, 놀이의 현장, 자아실현의 현장과 괴리된 불특정 공간으로만 존재하는 곳은 마을이 라 불릴 수 없다. 단순히 내가 거주한다고 그곳이 나의 마을은 아니다. 자기 삶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곳이며 누군가와 함께 공동의 기억을 보존하는 특정 공간, 즉 장소가 만들어질 때 비로소 마을은 호명된다.

지금 내가 거주하는 곳이 내가 사는 곳, 나의 마을이 되기 위해선 그 공간들에서 만나는 이들, 함께 살고 있는 이들과의 공통된 경험을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럴 때 공간은 나에게 유의미한 영역을 형성하고, 나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부여받는다. 때문에 장소성의 형성은 필연적으로 관계성의 형성과 함께 한다.

사실 여러 논쟁적 지점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교육이 능동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는 믿음이 존재한다. 그러한 믿음은 예술이 세계/삶에 대한 진지한 관찰에서 시작하여 그에 대한 성찰 속에서 새로운 세계/삶을 창조하는 과정 혹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여기는 데서 비롯한다.

확장해보면 마을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선(사실 개인적 차원이란 없다) 삶의 변화를 만들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 마을 차원의 삶의 변화란 마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를 바꾸는 일이다.

그러므로 문화예술교육(생산하는 방식, 소비하는 방식, 노동하는 방식, 먹고 자고 쉬고 노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의 양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창조적 실천이 가능하도록 예술과정을 배치하고 가르치고 익히는 행위 전반)이 마을 안에서 타자들 사이에 관계를 만들고 장소를 탄생시키는 끊임없는 과정이야말로 마을문화예술교육이라 명명할 수 있지 않을까.

□ 마을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키워드

문화예술교육은 내적특성으로부터 적어도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요소는 당연히 마을문화예술교육에서도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1) 비판적 성찰

일상은 언제나 옆에 있고, 경계가 흐려서 그 모두가 비슷비슷하여 너무나 쉽게 지나치게 되어서 일상이다. 그러나 감각을 예민하게 세우고 관찰하기 시작하면 일상으로 뭉뚱그려 명명되던 것들이 서로 다른 색과 소리와 향기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익숙한 풍경들을 그렇게 낯설게 만나고 해석하는 경험은 우리를 세계에 대한 다른 이해, 삶에 대한 성찰로 안내한다.

2) 창조적 실천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문화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문화는 내재되어 있는 것이지 외부에 독립되어 관계하지 않는다. 더구나 수많은 타자와의 연관 속에서 형성된 다중적인 시스템의 그물망은 매순간 일정한 영역과 형태로 문화를 고정한다. 삶을 바꾸는 일은 그래서 쉽지 않다.

예술은 특정한 시공간에서 시스템이 만드는 굴레를 쉽게 벗겨낸다. 예술적 행위는 신체에 다른 문화적 경험을 부여한다. 예술적 행위과정, 창작물, 창작물에 대한 감상 등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다른 문화에 대한 종합적 경험은 신체와 인식에 변화를 줌으로써 다른 삶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을 증폭시키는 창조적 실천이 된다.

3)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은 문화의 본성이며 예술의 본성이자 교육의 본성이다. 문화는 자연/사회/타인을 모두 포함한 타자들과의 충돌과 조정을 거쳐 내재화된다. 예술은 세계와 인간에 대한 질문과 대답의 연속이다. 교육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세계/사회와 마주설 수 있게 하는 주체형성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은 문화예술교육의 중요한 요소 정도가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이 성립하기 위한 제1기준이나 마찬가지다.

문화예술교육에 공통된 세 가지를 제외하고 마을예술교육에서 특별히 따로 살펴야 할 키워드는 ‘역사’이다.

마을문화예술교육은 관계와 장소를 형성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는 공통의 기억을 발견하고, 공통의 경험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지역과 집단이 공유하는 가치가 담긴 이야기가 탄생하고 회자되며 기록된다. 그렇게 마을엔 특별한 장소에 얽인 온갖 소소한 영웅담, 미담, 전설, 실록들이 쌓인다. 그 모든 유무형의 기록들이 살아서 이어지면 그것이 곧 마을의 역사가 된다.

마을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는 다양한 사람들을 마을로 불러낼 수 있다. 그렇게 불러나온 사람들은 고립으로부터 벗어나 관계를 확장하고 장소를 늘린다. 늘어난 장소로부터 마을의 역사는 새롭게 탄생하고 변형되면서 마을은 공동체로 구성되어 간다.

□ 마을문화예술교육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들

1) 요구의 발견

문화예술교육에서 피교육자의 요구를 읽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 요구가 감각적 욕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순간순간 발생하는 욕망 또한 아니다. 교사는 피교육자가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요구를 발현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교사는 피교육자가 처한 사회 문화적 환경과 개인사를 종합적으로 읽어내야 하며, 자신의 의지를 피교육자에게 투사하지 않아야 한다.

마을문화예술교육 또한 마찬가지이다. 마을(주민)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라 해서 그것을 마을의 요구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마을(주민)은 사회 문화적 환경으로부터 욕망을 간섭받기 때문이다.

2) 문화예술교육 운영주체의 형성

문화예술교육은 교사와 피교육자를 연결하고, 교육 공간과 물품 등을 확보하고 제공하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에서 대개의 경우 운영주체는 피교육자와 연결되는 기관이거나 시설이지만, 드물게 교사 그룹인 경우도 있다.

마을문화예술교육에서 운영주체는 다양하게 등장할 수 있다. 마을과 연계된 기관이나 시설일 수 있으며, 마을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혹은 주민단체일 수 있다. 마을에 대한 특별한 지향을 갖고 들어온 예술가 그룹 혹은 교사 그룹이 운영주체가 될 수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을 원하는 피교육자 그룹이 될 수도 있다.

이중에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고 긍정적으로 보이는 운영주체는 마을과 연계된 기관, 시설, 주민단체이다. 시민단체는 활동이 지향하는 범위가 넓어서 긍정적이지 않고, 예술가 그룹이나 교사 그룹들은 주민들과의 대면접촉을 통한 교육운영 경험이 일천하다. 게다가 마을예술교육에 대한 지향과 내용을 밝히는 예술가나 교사 그룹은 아직 발견되고 있지 않다. 공동체예술(커뮤니티아트)을 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있으나 나로선 아직 그들에게서 문화예술교육을 향한 전망을 발견하지 못했다.

기관, 시설, 주민단체의 경우도 문제는 남아 있다. 이들 대부분이 일회적이고 개별적이며 대상에 특화된 형태의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만을 가지고 있던 점이다. 운영주체는 적어도 마을문화예술교육이 마을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장소를 탄생시켜야 한다거나, 마을에서의 삶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기획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등의 목표설정을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그러한 목표에 달기 위해 마을 안에서 무엇을 어떤 과정으로 준비해야 할지 로드맵을 그려 놓고, 긴 시간 꾸준하게 밀고 나갈 추진력과 지구력을 갖추어야 한다.

3) 마을교사 발굴과 훈련

교육의 질은 교사가 결정한다. 교육 목표 설정과 운영 원리에 동의하는 것은 기본이다. 예술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훈련되어 있어야 하며, 피교육자와 실시간으로 호흡하면서 피드백 해야 한다.

마을문화예술교육은 교육현장과 과정이 확장된다. 정해진 시간에 특정한 대상과 정해진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 외에 해야 할 일이 많다. 어찌 보면 번외의 시간이 더 중요하기도 하고, 아예 정해진 틀과 대상이 없을 수도 있다. 때문에 마을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사에게는 마을을 읽고 이해하면서 교육현장을 스스로 설정하고 조정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때로는 마을의 일상성에 녹아들기도 해야 한다. 이런 교사는 그냥 나타나지 않는다. 현장에서 키워질 수밖에 없다.

□ 마을문화예술교육 기획자

특정 대상과 하나의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일에선 교사가 곧 기획자가 되곤 한다. 아니면 피교육자들과 연결된 기관이나 단체의 담당자가 기획자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문화예술교육에서 지금까지 기획자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요구되지 않아 왔을 것이다. 그런데 마을에서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모델을 만들어 가려면 좋은 기획자는 필수다.

세 가지 방향으로 살펴보자.

1) 요구의 발견

마을문화예술교육을 함에 있어서 마을의 요구를 끌어내는 건 중요한 시작이다. 그런데 그 마을의 요구란 것을 찾는 일이 간단치 않다. 표면에 드러나는 요구를 찾는 건 수월하지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실질적 요구를 발견해 내는 일이 어렵다. 더구나 마을 주민들과 일상적으로 접촉해 있는 마을 활동 주체들에게 마을 주민들과의 심리적 거리 유지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마을과 관계가 느슨하고 마을문화예술교육으로 훈련되지 않은 교사나 예술가들의 경우 상황은 정반대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다.

2) 운영주체 형성

마을과 연결된 기간, 시설, 주민단체 누구든 마을문화예술교육의 운영주체로 성장할 가능성을 지녔다고 해도,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역량을 모두 모은 네트워크를 넘어설 수는 없다. 마을을 바라보는 시야의 넓이에서도 그렇고 문제 해결 능력에서도 그렇다. 게다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해서 마을 안에 축적된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고 보면 마을 안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함께 고민하고 풀어갈 네트워크는 필수라 보인다. 그런데 정작 마을 안의 다양한 주체들이 눈앞에 놓인 과제들을 풀어가면서 서로를 가까이 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 지향이 같아도 서로 조금 다른 방향과 내용으로 하는 활동들을 하다보면 만나서 대화하는 일이 적다. 때론 아예 대화가 없기도 하며, 심한 경우 서로 존재를 모르기도 한다. 그렇게 지내다 보면 같은 꿈을 꾸는 이들끼리 서로를 경계하는 아이러니 한 일이 발생한다.

3) 교사 발굴과 훈련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있는 교사라 하더라도, 마을을 이해하고 마을에서 필요한 교육활동으로 전환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전에 없던 교육 내용의 개발이 필요할 수도 있고, 교육 방식이나 교육에 대한 기존의 사고 전체를 바꿔야 할 수도 있다. 그런 전환이나 새로운 훈련을 교사 개인의 판단과 역량에 맡겨둘 순 없다. 그렇다고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전문성도 약하고 교사나 예술가들의 특성도 잘 모르는 마을 활동 주체들에게 교사 발굴과 훈련을 요구할 수도 없는 일이다.

마을문화예술교육 기획자는 마을과 관계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마을의 진정한 요구를 찾아내어야 한다. 그런 요구를 교육으로 연결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전문성을 갖고, 교육을 수행할 교사나 예술가와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런 교육이 마을문화예술 교사의 훈련과정이 되게 해야 하고, 마을 내 운영주체들의 성장과 네트워크를 중요한 임무로 여겨야 한다. 역할을 늘어놓고 보니 이런 기획자를 어디서 찾아야 하나 싶을 만큼 어렵다. 하지만 그 어려운 만큼이나 마을을 조망하면서 문화예술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마을문화예술교육 기획자의 발굴 육성은 시급한 과제라 보인다.

기획자의 발굴 육성은 단순히 기획자 양성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마을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마을과 기획자로서의 자기 비전을 갖는 예술가 혹은 문화예술교사가 만나서 실천적 훈련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한국에서 문화예술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대략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교육 사례도 많이 쌓였고, 훈련된 교사들도 많이 나타났으며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많이 나아졌다.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교육이 마을을 시야에 두기 시작했다.

마을문화예술교육은 사회적으로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직접적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이 그 동안 요구받았던 과제 중 하나인 장기적이고 자생적인 문화예술교육, 즉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등을 통해 교육 방법론과 교육 모델은 많이 축적되었고, 훈련된 교사들 또한 많이 배출되었다. 그렇게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역량들이 마을문화예술교육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이다.

이제 마을에 시야를 두기 시작한 이상, 그에 맞는 지원 정책과 실험들이 필요하다. 다행히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기획협력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2년간 이러한 방향의 마을문화예술교육 실험을 시도하였다. 그 2년 동안 성과는 확실하게 있었다. 마을은 문화예술교육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충분히 발견하였고, 네트워크는 성장했다.